

· 본 연구결과물은 호원대학교내 학술 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호원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조교수

## 복식에 표현된 가벼움의 이미지

정연자\*

### 목 차

- I. 서론
- II. 가벼움에 대한 일반적 고찰
- III. 건축에 표현된 가벼움의 이미지
- IV. 복식에 표현된 가벼움의 이미지
- V. 복식과 건축에 표현된 가벼움의 비교 분석
- VI. 결론
- Abstract

### I. 서론

모든 디자인은 어떻게 제작되었는지에 관계없이(손으로든 기계로든), 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에 상관없이(옷, 제품, 그래픽, 광고, 건물, 인테리어, 도시 등) 즉각적으로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특정문화를 대변하는 상징체가 된다. 디자인은 우리의 일상 삶 자체를 담아내고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문화를 형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질서를 커뮤니케이션하고, 재생산하고, 경험하고 탐색하는 의미체계'로서 일상 삶의 중요한 실천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sup>1)</sup>

오늘의 시대적 상황을 조명하여 보면, 산업 선진국들은 사회적 기능의 변화, 집단이나 사상의 다변화를 촉진하는 자유주의, 그리고 모든 것이 허용되는 한 "모든 생각이 가능하다"는 이념의 개방주의를 통하여 기술적으로 진일보한 탈공업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sup>2)</sup> 또한 속 내용을 내보이는 개방적인 오늘날은 겉껍치 싸여있는 것보다 경쾌하고 깨끗한 감성에 보다 큰 매력을 느끼는 시대<sup>3)</sup>이다. 이에따라 디자인분야에서도 가벼움의 추구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복식에서도 많이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가벼움의 표현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현대인들이 무거운 관념보다 가볍고 경쾌한 감수성으로 살아가고픈 바람이 표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완전히 조화롭게 통합된 문화는 그것의 표상체를 통해 독특한 감정의 통합성을 드러내며 서로 다른 회화와 철학, 혹은 건축과 수학 같은 활동에서도 공통적으로 감지되는

1) 김민수, 『21세기 디자인 문화탐사』, 서울:술, 1999, p.11,33.

2) 프랑소와 브르크하르트, "유럽 디자인의 미래", 『산업 디자인108』, 1990, Vol.21.  
3) 朝倉直巳, 김학성, 조열(역), 『순수미술·디자인 분야를 위한 평면구성』, 서울:조형사, 1998, p.192.

4) Roach, M. E. & Musa, K. E. New Perspectives on the History of Western Dress. New York: Nutirguides Inc., 1985, p.33.

5) Kolodny, R. Fashion Design for Modern.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 Inc., 1968, p.103.

6) 최윤미, "90년대초 복식에 나타난 가벼움에 대한 고찰", 『한국의류학회지』, 1994, 제18 권 5호, p.145.

7) Wolfflin, H. Translated by M. D. Hottinger, Principles of art history. New York: Dover Publications. Inc., 1929.

8) Walker, J. A. 『디자인의 역사』, 정진국(역), 서울: 까치, pp.145-151.

정신이 있다. 이러한 현상을 Roach와 Musa<sup>4)</sup>는 문화적 일관성(Cultural Consistency)이라 하였고, Kolodny<sup>5)</sup>는 건축가나 예술가, 음악가, 문학가 등과 같은 오늘날의 감각적인 디자이너는 현대적 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하여 같은 반응을 한다고 하였다.

공통적인 정신이 없다면 서로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영역으로 갈라져 버리게 될 이러한 영역들이 동시에 갖고 있는 감성적 배경을 찾고자 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사료되어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또한 사회문화적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 가벼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 연구에서도 최윤미<sup>6)</sup>의 연구가 있지만 다른 예술 양식에 나타나는 가벼움에 대한 비교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복식과 건축을 비교 연구하면서 현대 복식에 표현된 가벼움의 이미지를 밝혀 복식에 표현된 가벼움의 현대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양식상의 차이와 유사성을 추출해내는 Wolfflin<sup>7)</sup>과 여러학자들이 즐겨 사용한 비교 미학적 방법<sup>8)</sup>을 사용하였다.

내용적으로는 문헌연구와 실증적 자료분석을 병행하였다. 실증적 분석은 건축에서는 1960년대 이후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였고, 복식에서는 가벼운 이미지의 복식이 많이 대두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 현재까지 『Collection』 『Vogue』에 나타난 작품들 가운데 복식 전공자 2인이 가벼운 이미지의 의복이라고 공통적으로 판단한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 II. 가벼움에 대한 일반적 고찰

### 1. 가벼움의 정의

‘가벼움’은 ‘가볍다’의 명사형이다.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가벼운, 경쾌한, 쾌활한, 즐거운 의미를 지니고 있다.<sup>9)</sup> ‘가볍다’의 사전적 정의를 일상에서 사용되는 여러 갈래로 나누어 살펴보면, 우선 몸짓과 자세를 표현하는 ‘움직임이 날쌔고 재다’, 혹은 ‘움직임이 약하거나 가늘다’, 마음을 표현하는 ‘마음이 가뜩하거나 흥가분하다’, 일상에서 사용되는 ‘옷차림이 가뜩하고 경쾌하다’, 사물의 상태와 형태를 묘사하는 ‘무겁지 않다’.<sup>10)</sup> (옷차림이) 활동하기 좋거나 편하다. (마음이) 억눌림 없이 편하다. (몸이) 상쾌하고 가볍다.<sup>11)</sup> 등의 의미가 있다.

1914년 Sant' Elia는 메사지오(Messaggio)에서<sup>12)</sup>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재료의 유연성은 구체적인 형상을 갖추었으며, 정신적 태도가 생겨났다. 우선적으로 미의 새로운 이상의 형성은 아직도 유치하고 모호하지만, 이따, 그 매혹에 의해서 대중을 자극하고 있다. 우리는 기념비적인 것, 육중한 것, 정적인 것의 감각을 상실하였으며, 우리는 가벼운 것과 실제적인 것에 대한 취향으로 우리의 감수성을 풍부히 장식하고 있다.’

또한 엘레아 학파의 창설자인 Parmenides(기원전 약 520-450)는 존재 본성에

9) 시사영어사/Random House, 『英韓大辭典』, 서울: 시사영어사, p.1313.

10) 최윤미, "90년대초 복식에 나타난 가벼움에 관한 고찰", op. cit., p.730.

11) 야후! 국어사전, 금성출판사.

12) Banham, R. 『제1 기계시대의 이론과 디자인』, 윤재희·지연순(역), 서울: 세진사, 1987, p.168.

13) Zeller, E. 『희랍철학사』, 이창대(역), 서울:이론과 실천, 1991, pp.77-81.  
 14) Kundera, M.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송동준(역), 서울:민음사, 1995.

15) 김미지자, 『21세기 디자인을 위한 감성공학』, 서울:디자인 오피스, 1998, pp.3-4.  
 16) Derrida, J. The end of the book and the beginning of writing.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4, pp.6-26.

17) Kroker, Arther. The Post-Modern Scene. New York: St Martine's Press, 1986, pp.11-14.  
 18) 박명희,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연구",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1999, 제3권1호, p.151.  
 19) 최윤미, "90년대 초 복식에 나타난 가벼움에 관한 고찰", op. cit., p.730.

대해 존재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빛과 불, 가벼움, 따뜻함을, 비존재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밤, 어둠, 무거움, 차가움으로 구분하였다.<sup>13)</sup>

1984년 Kundera<sup>14)</sup>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일상은 반복을 의미하고, 반복은 가벼움을 산출한다고 하면서 '영원한 회귀가 가장 무거운 짐이라면 이것을 배경으로 저느린 우리의 삶은 찬란한 가벼움속에서 그 자태를 드러낸다.'고 전제하였다.

이처럼 가벼움의 개념은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변화와 자유를 추구하는 현대에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 2. 현대 복식에서 가벼움의 특성이 표현된 전반적인 배경

### 1) 사회문화적 배경

지금까지 과학에서부터 예술에 이르는 인간의 모든 활동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간의 감정(feeling)과 감성(emotion)들이 종종 사소하게 다루어져 왔다. 지난 세기를 휩쓸었던 많은 불운들은 감성적인 측면들이 배제된 채 산업과 기술만이 기능적인 중요성을 갖는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소비양상은 인간의 감성에 의해 좌우된다.<sup>15)</sup>고 할 수 있다.

Derrida<sup>16)</sup>는 모더니즘의 기존질서를 해체, 분산시킴으로써 인간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주려 하였다고 했다. 즉 이성중심주의 사상인 모더니즘의 주체개념이며, 특정 시대의 사회체제를 절대화시키려는 허구적 이데올로기 산물을 분해하고 해체하여 계몽적 다양한 유산을 재해석하고 연관시켜 문화를 새롭게 구성하고자 하였다.

현대는 사회·문화적으로 탈산업사회, 탈현대(postmodern)사회의 특징적 면모들을 드러내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문화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하에서 일상생활의 부분이 된 소비문화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대중소비문화적 특성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며 복식에도 표현되고 있다.

패션의 포스트모더니즘은 물건간적인 모더니즘 패션에 반기를 들어 멋지고 화려한 자유분방하고 여성스런, 로맨틱하면서도 퇴폐적인 개인의 욕구를 배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sup>17)</sup> 즉 인간의 이성보다는 감성을 중시하여 다양한 스타일로 미적 즐거움, 유희, 쾌감 등의 복잡한 감정을 표출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sup>18)</sup> 예술분야에서 고전적인 가치 및 그 기준에 부응하는 것 혹은 고급문화를 지칭할 때 '무거움'이라는 말이, 그에 반대되는 의미 즉 고전적인 가치 및 그 기준에 못미치는 경우 또는 저급문화, 대중문화를 지칭할 때 '가벼움'이라는 말이 사용되는데<sup>19)</sup> 대중사회화가 곧장 문화적 저속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원래 대중에서의 문화는 대중에게 '열려있는' 문화인 것이다. 대중사회에도 여전히 고급문화와 저질문화는 모두 존재하기 마련인 것인데, 단지 특수계층의 전유물이다시피 했던 문화적 접촉의 기회가 대중에게도 주어지게 됨을 뜻한다.

대중사회에서의 의복은 더 이상 딱딱한 이미지일 필요가 없어졌고 그보다는 사람들

의 요구에 쉽게 적응하는 유연한 이미지가길 요구받게 되었다. 이런 시대배경 속에서 문화적 삶, 정신적 삶에서는 가벼움을 추구하는 새로운 감성이 표현되었다. 복식에서도 더 이상 신분 상징적이고 권위적인 무거운 분위기의 의복일 필요가 없어졌고, 지난 시대의 무거운 삶에 대한 변화욕구로서 가벼움이 대두되었다.

## 2) 철학적 배경

합리적 사고, 객관적 지식, 절대적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소박한 믿음은 무너졌다.

20) Nietzsche, F.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최민영(역), 서울:집문당, 1883.

21) Sartre, J. P. 『존재와 무(L'etre et le n'ant)』, 방근(역), 서울:문예출판사, 1983.

Nietzsche의 '영구회귀(永久回歸)'<sup>20)</sup>나 Sartre의 '존재는 본질에 선행한다'<sup>21)</sup>는 명제는 인간존재의 '가벼움'을 성문화하고 있다. Nietzsche의 '永久回歸'사상은 초인사상과 함께 중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모든 것이 그 언젠가는 이미 앞서 체험했던 그대로 반복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반복 또한 무한히 반복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원히 사라져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삶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그것은 아무런 무게도 하찮은 것이며, 처음부터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뜻이 된다. 이 사상은 체코 출신의 작가 Kundera의 화제작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의 출발점으로 있다.

“무거운 짐은 가장 격렬한 생명의 완성에 대한 이미지가 되기도 한다.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삶이 지상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삶은 보다 생생하고 진실해진다. 반면에 짐이 완전히 없다면 인간 존재는 공기보다 가벼워지고 날아가버려 지상적 존재로부터 기껏해야 반쯤만 생생하고 그의 움직임은 자유롭다 못해 무의미해지고 만다.”<sup>22)</sup> 는 것이 밀란 쿤데라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의 주제이다.

22) Kundera, M.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op. cit.

밀란 쿤데라의 미덕은 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일상성을 예리하고 섬세하게 그려낸 데 있다. 일상은 반복을 의미하고, 반복은 가벼움을 산출한다. “영원한 회귀가 가장 무거운 짐이라면 이것을 배경으로 거느린 우리의 삶은 찬란한 가벼움 속에서 그 자태를 드러낸다.”고 전제하면서 쿤데라는 이렇게 묻는다. 그러나 목적함은 진정 끔찍한 것이고, 가벼움은 아름다운 것일까?

우연으로 점철된 우리의 삶은 우리 모두에 의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바로 중심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의 삶은 비교도 반복도 되지 않아 깃털처럼 가볍다. 그러나 아무런 중심도 없이 너무 가벼워지면 우리의 삶은 무의미해질 것이다. 순간적인 삶이 영원히 반복될 수 있는 삶으로 고양되는 지점이다. 그렇다면 중심으로부터의 탈선 즉 가벼움이 문화적 기호가 되어 버린 현대사회에 깃털처럼 가볍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면서도 양보할 수 없는 자신만의 가치를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상대화하면서 동시에 우연을 견뎌낼 수 있는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극복을 요구한다.

인간은 모든 생명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알고 있으며, 그 자신의 절망적 운명도 알고 있다. 따라서 감각적 쾌락을 통해 자신의 현존을 확인하고 즐기고자 하는 속성이 있다.

절대적 진리나 가치에 대한 기존의 믿음이 사라지게 되자 인간 존재는 아주 '가벼운' 것이 되었다. 인간은 의지할 대상도 적어졌지만 지켜야할 규범도 줄어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에서 자유로워졌다고 할 수 있다.

### III. 건축에 표현된 가벼움의 이미지

건축에서 '가벼움'이란 개념은 전통적 개념에 상대되는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건축의 '전통적'인 것은 전통적인 재료로 된(돌, 벽돌, 목재) 완결적이고 기념비적인 견고한 느낌을 말하는 것이며 '비전통적' 개념인 '가벼움'은 '가벼워 보이게 하는 특성'을 가리키는 말로 외형상 감지될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을 가리키는 말이다.<sup>23)</sup>

23) 임미나, "가벼운 느낌을 주는 건축디자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p.8.

#### 1) 유연성

형태적 유연성은 시공과 해체의 용이성, 부분적 교체나 성장의 용이성, 이동의 용이성이 강조된 디자인을 말한다. 시공과 해체가 쉽다고 하는 것은 실용적인 면에서 매우 많은 잇점을 가지고 있다. 현장에서의 오랜 공사로 인하여 빚어지는 불편을 피할 수 있고, 부지에 대한 구속을 적게 받는다. 즉 언제고 제거할 수 있는 가벼운 것이란 생각 때문에 부지의 컨텍스트에 대한 심각한 고려를 유보하게 해주며, 한정된 기간동안 부지를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허락해 준다. 또한 단위요소가 쉽게 교체될 수 있다는 것은 벽이 창이 될 수도 있고, 내부가 외부로 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위가 최종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된다. 즉 건물은 변화에 대하여 열려있고, 현재 건물의 형태는 완결지어진 것이 아니라 본래 어떠한 기념비성도 주장하지 않는 유연한 가벼운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sup>24)</sup>

24) Ibid, p.68,81.

어떤 건축물이 이동이 용이하다고 하는 것은, 그 건축물이 이동하기 쉬워보이는 외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건축물의 무게가 실제로 가볍다는 것을 생각하게 할뿐더러 그 존재가 오늘 있다가도 내일은 사라질 가벼운 것임을 생각하게 한다.

퐁피두 센터(Pompidou Centre;1971-1977)(그림1)은 국제현상설계를 통하여 계획되어진 종합 문화예술공간으로서 구조골격 자체가 changing meccano set로 만들었다. 유연성과 융통성을 부여하며 전통적이고 인습적인 아이덴티에 대한 단호한 거부라는 모토로 설계되어진 이 건물은 단위요소, 즉 단위벽체나 단위빔대와 같이 구성부재가 변화되어질 수 있음으로 인해 벽이 창이 될 수 있고, 내부가 외부로 될 수 있는 성장가능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sup>25)</sup>

25) Russell, F. Richard  
Roders+Architects.  
London: Architectural  
Monographs, 1985,  
p.13.

#### 2) 경쾌성

시각적으로 투명하다는 것은 시야가 개방되어 있는 옥외공간에서의 느낌과 유사한 느낌을 가지게 하므로 경쾌성으로 파악될 수 있다.

공간의 느낌을 좌우하는 요소로서 내부의 형태는 본질적인 요소의 하나이다. 하나의

26) 김태영, "현대건축에 있어서 탈규격 공간형태의 역동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1989, p.55.

27) 김민수, 「21세기 디자인 문화탐사」, op. cit., p.171.

28) Arnhem, R. 「미술과 시지각」, 김춘일(역), 서울:기린원, 1988, pp.48-49.

29) Drew, P. 「건축의 제3세대」, 최무형(역), 서울:기문당, 1990, p.184.

단일 공간은 2차원의 면적인 요소인 바닥과 벽, 천장에 의해 형성된다. 이들 각 요소는 구성기술의 발달에 의해 자유로운 형태표현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공간 역동성에 기여하는 성질은 경사성과 곡면성이다.<sup>26)</sup> 사선적 요소가 많은 형태, 휘어올라간 형태, 리드미컬한 형태, 돌출이 많은 형태 등은 공간을 유동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2)는 Himeblau (Coop Himeblau, 'Falkestrasse 5, 1988')의 지붕 개조로 법률가 사무실과 회의실을 포함하고 있는 고체적인 구조를 해체시키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빛과 에너지의 은유를 선적인 공간 구성으로 전환시키고 있다.<sup>27)</sup> 이 프로젝트에서는 유리 와 금속판으로 이루어진 볼트와 경사면의 공간에서 마치 새의 가냘픈 날개뼈 처럼 보이는 금속뼈대가 공간 유동의 방향을 주도하고 있다.

즉 시각적 투명성은 공간의 상호 침투를 유발하고 시각차 효과를 일으켜서 야외에서와 같은 개방감을 주며 또한 따라서 가벼운 느낌을 준다.

### 3) 항상성

시간적 무상성(Transiency)을 말하는 것으로 위치에너지가 높은 형태라든가 빛의 효과에 의한 표면에서의 반사, 산란, 투과에 의해 가벼운 특성이 나타난다.

위에너지가 높은 형태라고 하는 것은 무너지거나 날아올라가거나 옆으로 움직이거나 진동하거나 하는 등의 운동 가능성을 암시하는 형태를 가리킨다. 이는 R. Arnhem이 말하는 '시각적 안정감'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에 의하면 건물이 어떻게 버티어 서 있는가를 이해하는 방식에는 두가지가 있다고 한다. 첫째로는, 건축의 방법과 재료의 강도를 따지는 기능 등의 공학적 이해가 있고, 둘째로는 기술적인 정보를 이해하고 있거나 없거나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시각적인 이해가 있다.<sup>28)</sup> 이런 이해에 의해 안정감이 적어 보이는 형태가 위에너지가 높은 형태라고 할 수 있다.

Frei Otto의 뮌헨 올림픽 스튜디오 지붕은 '풍부한 기복을 가진 자연 경관과 비슷한 형상을 가진다.'<sup>29)</sup>고 말해진다. 파도치는 물결이나 나비의 날개 따위를 연상시키는 텐트의 모양이 텐트 구조를 날아갈 것 같은 가벼운 것으로 보이게하고, 따라서 일시적인 무상한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

텐트구조의 그런 인상이 성공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예로는 파리의 라 데팡스(La Défense)지구의 테뜨 데팡스(Tête de la Défense, 그림3)를 들 수 있다. 루브루궁과 개선문의 연장 축상에 있는 테뜨 데팡스는 가운데가 뚫린 입방체 모양을 하고 있는데, 뚫린 부분의 광장을 덮는 '구름(nuage)'이라는 텐트 구조물은 그 가벼움의 인상을 한껏 발휘하여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개방성을 상징하고 딱딱한 입방체의 모습을 부드럽게 해주는데에 이용되고 있다.

현대 건축이 시각적인 안정감에 대해 저항하는 것은 양식적인 관념의 인습들이 항상 변화적인 것의 대립되는 관계에서 왔으므로 이러한 보수성에 대한 반항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시간적으로 무상함을 암시하는 불안정한 형태는 동적이고 가벼운 독특한 아름다

다움을 가진 것이다.

#### IV. 복식에 표현된 가벼움의 이미지

의복이 다른 조형분야와 다른점은 직접 인체에 입혀져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것이다. 복식은 인체가 매개체인 물적 대상이다. 인체위에 공간을 형성하는 것은 의복에 있어서는 옷감이다. 복식의 조형성은 주로 옷감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30) Delong, M. R. The way we look, Iowa: Iowa State University Press, 1987, p.52.

실루엣의 특징도 소재의 질감에 영향을 받는다.<sup>30)</sup> 부드럽고 얇은 소재는 단단하고 두꺼운 소재가 창출하는 것보다 가벼운 실루엣을 표현하면서 가볍고 경쾌한 느낌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감각적 지각과 지적 지각이 통합된 방법으로서 복식에 표현된 가벼움의 이미지 특성으로 형태의 유연성, 공간의 경쾌성, 자유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1. 유연성

지난 시대의 무거운 삶에 대한 변화 욕구로서 가벼움이 대두되어, 몸에 끼는 스타일 보다는 유연한 스타일을 받아들였고 무게감을 느끼지 않고자 하는 욕구는 가벼운 복식의 증가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건축에서의 유연성은 시공의 용이성에서 나타나는 특성이지만 복식에서는 가벼운 소재의 실루엣에서 느껴지는 유연성을 말하고자 한다.

31) Vogue, 1987년 2월, pp.183-5.

87년 봄, 밀라노에서는 흐르는 듯한 유연한 얇은 모와 트위드, 실크 등 경량감 소재를 이용하여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표현하였다.<sup>31)</sup>

비치는 얇은 천을 사용한 부드럽고 자유스러운 흐르는 듯한 스타일은 1987년 봄에 새로 등장한 패션경향으로, 밀라노의 Giorgio Armani, Romeoogigli로부터 시작하여 92년과 93년 성숙기를 맞았다. 그리고 98년 9월 부터 열리기 시작한 99S/S 뉴욕 및 유럽컬렉션에 참가한 많은 디자이너들은 가볍고 시원한 소재의 의상을 발표하였다.<sup>32)</sup>보그<sup>33)</sup>는 차세대의 미래패션은 흐르는 선이라고 하였다.

32) 「Collections」, 1999, S/S, P/L, NY/TK.  
33) Vogue, 1998, 08, p.162.

(그림4)는 Marina Rustd의 작품으로 거의 입은 것 같지 않은 가벼움을 표현해주며 흐르는 듯한 유연한 실루엣을 창출하고 있다.

##### 2. 경쾌성

공간과 인간과의 상호작용에는 어떤 자극이 있어야 하는데 완전개방이나 완전폐쇄에는 그 자극의 정도가 미약하다. 공간의 다양한 변화를 주기 위해 인간과 의복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자극을 유발하는데 있어서 투명성은 중요한 개념의 하나이다. 투명한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내외부가 동시에 보이고 공간간의 연계성이 높아지며 공간의 깊이가 생긴다. 따라서 투명한 것도 하나의 층이 되어 공간을 매력있게 하는 요소가 된다.

시각적으로 투명하다는 것은 시야가 개방되어 있으므로 경쾌함을 가져다준다. 투명 재료가 많이 사용되는 현대적 추세에서 시각적 투명성은 보편화 추세에 있다.

34) 정연자, "복식에 표현된 투명성의 이미지",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p.5

투명성(transparency)이란 전면과 후면을 통하여 보여지는 실체적 속성, 빛을 통과시키는 재료의 특성, 배후에 있는 물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물질적 특성, 공간적으로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것을 동시에 지각할 수 있는 특성을 의미한다.<sup>34)</sup>

(그림5)는 Courrèges의 작품으로 공간적 경쾌성을 표현해주고 있다. 비닐 겹옷의 투명함은 내·외공간의 상호관입을 가져다주고 동시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공간적 상호침투는 공간을 흥미롭고 활기차게 해주는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

### 3. 자유성

35) 학원사 편집부, 「철학 대사전」, 서울:학원사, 1985, p.934.

자유로운 행동에 있어서 사람은 자유의 의식을 갖는다. 자유의 반대는 부자유 즉 속박으로서 자기 이외의 법칙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을 가리킨다.<sup>35)</sup>

오늘날 자유롭고자 하는 마음은 과거 사람들을 강력하게 구속하였던 전형(典型:사람들이 본받아야만 된다고 여기어 왔던 모습)을 만들려는 힘 만큼이나 강렬하여, 이제 이 의지는 무한히 뻗어가는 사람들의 사고 능력과 더불어 이제까지 우리들을 유지시켜 주었으며 한편으로는 삶들을 구속하였던 과거의 전형을 무너뜨리고 있다.<sup>36)</sup> 이는 인간의 본능적인 행동의 최후의 단계이다.

36) Grenier, J. 「자유에 관하여」, 장희숙(역), 서울:청·하, 1999, p.66.36) Grenier, J. 「자유에 관하여」, 장희숙(역), 서울:청·하, 1999, p.66.

의복도 사회와 마찬가지로 점점 더 많은 변화와 자유를 추구하게 되었다.

18세기 프랑스 혁명기에 그 뚜렷한 특성이 나타난다. 혁명복의 특징은 "옷을 입어서도 나체로 보이게 만든다."는 점이다. 혁명기의 분위기는 절대 왕권으로부터의 인간 해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람들은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려 하였다. 여성은 이러한 해방감을 표현하고자 얇은 모슬린으로 된 투명한 그리이스풍의 옷을 입었다.<sup>37)</sup>

37) Fuchs, E. 「풍속의 역사(4)」, 이기웅(역), 서울:까치, 1988, pp.59-70.

여성에게 있어 의복은 인체를 심미적으로 꾸미고 거짓된 것으로 금지되고, 비난받아 졌다.<sup>38)</sup> 그러나 오늘날 복식은 인체를 구속하지 않는 자유롭고 편안한 스타일, 활동을 구속하지 않는 가벼운 스타일 들이 많이 표현되고 있다. 이는, 구속에서 독립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38) Evans C. & Thornton, M. Women & Fashion -A New Look-. London: Quartet Books, 1989, pp.11-14.

(그림6)은 Issey Miyake작품으로 커다란 형태이지만 얇고 비치는 소재여서 가벼움을 전달해주고 인체를 구속하지 않는 자유스러움을 느끼게 한다.

## V. 건축과 복식에 표현된 가벼움의 비교 분석

감성적인 삶이 주관하는 인간의 거대한 활동범위는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상황이란 우리가 역사속의 어느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저런 종류의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완전히 조화롭게 통합된 문화는 그것의 표상체를 통해 독특한 감정의 통합성을 드러낸다. 서로 다른 영역이 공통적으로 감지되는 정신이 있다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니다. 동일한 시대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 기술, 과학 그리고 예술은 이러한 보편적인 정신의 영향 아래 놓인다. 예술가들이 특별히 관심을 두고 표현하려는 감정은 공학자와 수학자



39) S. Giedion, 『시간·공간·건축』, 김경준(역), 서울: 시공문화사, 1997, p.392.  
 40) 박명희, "1980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1990.,  
 41) 장애란, "복식에 나타난 건축적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42) 정연자, "복식에 표현된 투명성의 이미지", op. cit.,  
 43) Walker, J. A. 『디자인의 역사』, op. cit., p.145.

에게도 작용한다. 우리는 공통적인 정신이 없다면 서로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영역으로 갈라져 버리게 될 이러한 영역들이 동시에 갖고 있는 감성적 배경을 찾아야 한다.<sup>39)</sup>

박명희<sup>40)</sup> 장애란<sup>41)</sup> 정연자<sup>42)</sup>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건축과 복식은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문화적 공유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을 비교하고 대조해보는 목적은 유사성과 차이점을 밝히는 데 있으며 비교대상이 거의 동일하거나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거의 가치를 잃게 된다고 하였다. 즉 비교 분석 방법의 최상의 가치는 비교대상이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차이점을 나타내 다양성을 보일 경우이다.<sup>43)</sup> 본 연구에서도 공통점이 있는 반면 차이점도 나타나 다양성을 나타냈다.

건축과 복식에 표현된 가벼움의 이미지를 비교 고찰하여 <표1>로 정리하였다.

<표1> 건축과 복식에 표현된 가벼움의 이미지 비교 분석

이미지	건축	이미지	복식
유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공과 해체가 용이, 부분적 교체나 성장의 용이, 이동의 용이성 강조</li> <li>· 건물은 변화에 열려있고, 현재 건물의 형태는 완결지어진 것이 아니라 본래 어떠한 기념비성도 주장하지 않는 유연한 가벼운 성질을 표현.</li> </ul>	유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드럽고 흐르는 듯한 스타일로 입은 것 같지 않은 가벼움과 편안함을 전달.</li> <li>· 지난시대의 어둡고 무거운 관념에서 벗어나고픈 욕구를 표현.</li> </ul>
경쾌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선적 요소가 많은 형태, 휘어올라간 형태, 리드미컬한 형태, 돌출이 많은 형태 등 공간을 유동시키는 공간구성.</li> <li>· 시야가 개방되어 있는 옥외공간에서의 느낌과 유사한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경쾌성 표현.</li> </ul>	경쾌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적인 것에서 느껴지는 시각적 투명성.</li> <li>· 투명한 의복은 내·외부의 경계를 없애주면서 개방감과 함께 공간적 경쾌성을 표현.</li> </ul>
항상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너지거나 날아올라거나 옆으로 움직이거나 진동하거나 하는 등 위치에너지가 높은 형태로 시간적 무상성을 암시하는 동적이고 가벼운 독특한 아름다움 표현.</li> </ul>	항상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속받지 않는 자유의식을 표현.</li> <li>· 인체를 구속하지 않는 얇고 투명한 복식으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이미지 표현.</li> </ul>

## VI. 결 론

현대의복의 개념은 이제 전통적 개념과는 다르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변화와 자유를 추구하는 시대이고, 의복에 있어서도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자유를 허용하는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 이상적인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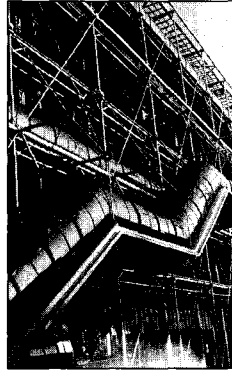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가벼움의 특성이 가진 미적 표현의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 경향이 있으나 그것은 가벼운 의복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디자인 전 분야에 가벼움의 특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의 이해와 바람직한 표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복식에 표현된 가벼움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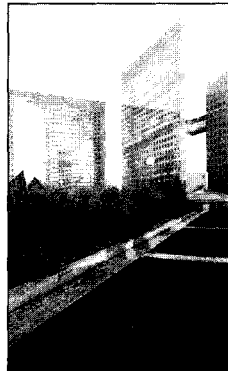
첫째, 유연성은 부드럽고 흐르는 듯한 스타일로 입은 것 같지 않은 가벼움과 편안함을 전달해주고 있다. 이는 지난 시대의 어둡고 무거운 관념에서 벗어나고픈 욕구를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둘째, 경쾌성은 공간적인 것에서 느껴지는 시각적 투명성에서 표현되었다. 내·외부의 경계를 없애주면서 개방감과 함께 공간적 경쾌성을 표현하고 있다.

셋째, 자유성은 인체를 구속하지 않는 얇고 투명한 복식으로, 또한 활동의 자유로움을 주는 복식으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이미지를 표현하여 구속받지 않는 자유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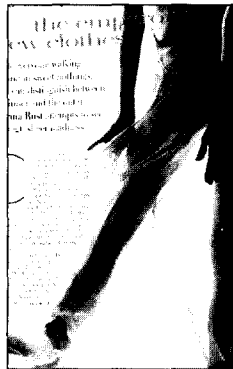
(그림1) R. Rogers & R. Piano  
Pompidou Center(1977)  
C. Mcdermott, Book of 20th  
Design, 1977, p.63.



(그림2) Coop Himmelblau,  
Falkestrasse5(1988)  
김민수, 21세기 디자인 문화탐  
사, 1997, p.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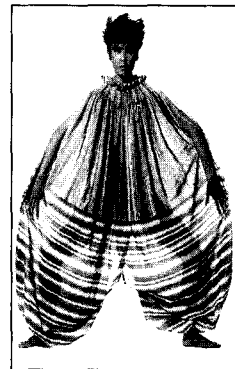
(그림3) Tête de la  
Défense(1988)  
건축문화, 1990, 06, p.93.



(그림4) Marina Rust, 형태의  
유연성  
Vogue, 1997, 04, p.180.



(그림5) Courrèges, 공간적  
경쾌성  
Collections, 1995 S/S,  
P/L, p.311.



(그림6) Issey Miyake, 자유성  
Issey Miyake, 1998, p.23.

## 참 고 문 헌

- 김민수, 『21세기 디자인 문화탐사』, 서울:솔, 1999.
- 김미지자, 『21세기 디자이너를 위한 감성공학』, 서울:디자인 오피스, 1998.
- 김태영, “현대건축에 있어서 탈큐빅 공간형태의 역동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1989.
- 朝倉直巳, 김학성, 조열(역), 『순수미술·디자인 분야를 위한 평면구성』, 서울:조형사, 1998.
- 박명희,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연구”,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1999, 제3권1호.
- 박명희, “1980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 학위논문(41)
- 시사영어사/Random House, 『英韓大辭典』, 서울:시사영어사
- 임미나, “가벼운 느낌을 주는 건축디자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야후! 국어사전, 금성출판사.
- 정연자, “복식에 표현된 투명성의 이미지”,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장애란, “복식에 나타난 건축적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최윤미, “90년대초 복식에 나타난 가벼움에 대한 고찰”, 『한국의류학회지』, 1994, 제18권 5호.
- 학원사 편집부, 『철학 대사전』, 서울:학원사, 1985.
- 프랑소와 브르크하르트, “유럽 디자인의 미래”, 『산업 디자인108』, 1990.
- Arenheim, R, 『미술과 시지각』, 김춘일(역), 서울:기린원, 1988.
- Banham, R, 『제1 기계시대의 이론과 디자인』, 윤재희·지연순(역), 서울:세진사, 1987.
- Drew, P, 『건축의 제3세대』, 최무혁(역), 서울:기문당, 1990.
- Fuchs, E, 『풍속의 역사(4)』, 이기웅(역), 서울:까치, 1988.
- Grenier, J, 『자유에 관하여』, 장희숙(역), 서울:청·하, 1999.
- Kundera, M,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송동준(역), 서울:민음사, 1995.
- Nietzsche, F,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최민영(역), 서울:집문당, 1883.
- Sartre, J. P, 『존재와 무(L'etre et le n ant)』, 방곤(역), 서울:문예출판사, 1983.
- S. Giedion, 『시간·공간·건축』, 김경준(역), 서울:시공문화사, 1997.
- Vogue, 1987년 2월

- Vogue, 1998, 08.
- Walker, J. A. 『디자인의 역사』. 정진국(역). 서울:까치
- Zeller, E. 『희랍철학사』. 이창대(역). 서울:이론과 실천, 1991.
- 「Collections」. 1999, S/S, P/L, NY/TK.
- Derrida, J. The end of the book and the beginning of writing, Baltimor: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4.
- Delong, M. R. The way we look, Iowa:Iowa State University Press, 1987.
- Evans C. & Thornton, M. Women & Fashion -A New Look-. London: Quartet Books, 1989.
- Kolodny, R. Fashion Design for Modern. NewYork:Fairchild Publication Inc., 1968.
- Kroker, Arther, The Post-Modern Scene. NewYork:St Martine's Press, 1986.
- Roach, M. E. & Musa, K. E. New Perspectives on the History of Western Dress.New York:Nutirguides Inc., 1985.
- Russell, F. Richard Roders+Architects. London:Architectural Monographs, 1985.
- W lfflin, H. Translated by M. D. Hottinger, Principles of art history. New York: Dover Publications. Inc.,1929.

ABSTRACT

The Image of Lightness Expressed in Fashion

Yeon-Ja, Jung\*

\* Dep. of Fashion  
Design, Ho-Won  
Univ. Professor

This study attempted to make a comparative investigation into architecture and fashion. It was intended to grasp the contemporary meaning of fashion expressed in fashion by investigating the image of lightness expressed in contemporary fashion.

With the increasing trend of the characteristics of lightness over the whole field of contemporary design, this study took an opportunity to probe its understanding and a desirable direction of expression. The study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lexibility conveys comfortableness and lightness that makes people feel wear no costume in a soft and flowing style. This phenomenon is thought to express the desire to depart from the dismal and heavy ideology of the past times. Second, lightness is expressed as the virtual transparency felt from what is spatial. It shows a sense of openness while removing the internal and external boundary. Third, liberalness expresses the unfettered consciousness of freedom by expressing an open, free image through free, thin and transparent fashion.